

K-관광섬 '말도 등대' 해양문화공간 탈바꿈

군산시,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국비 12억 포함 총 40억 원 확보
서해안섬 트레킹 상징화 호평



군산 말도 등대 전경

1909년 최초로 점등한 전북자치도 최초 등대인 군산 말도 등대가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말도 등대는 서해안 대표 섬 관광 명소로의 도약을 예고했다.

21일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5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말도 등대가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있는 등대를 문화시설로 조성해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등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이에 시는 'K-관광섬 육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말도 등대를 섬 트레킹의 대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 준비를 추진했다.

여기에 말도 등대의 역사적 상징

성과 CNN도 인정한 고군산군도 천혜의 비경과 어우러지는 해양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말도 특유의 섬 문화와 등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강임준 시장이 직접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민반의 준비를 갖춘 시는 지난 6월 공모를 신청했고 이달 전문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

세계 최초로 다섯 개의 섬을 4개

의 순수 인도교로 연결하는 말도-명도-방축도 '해상인도교 설치공사'와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K-관광섬 육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말도 등대를 서해안의 대표 상징 걷기 여행(트레킹) 거점명소로 상징화한 것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 선정으로 시는 2025년부터 2년간 총사업비 40억(국비 12억, 지방비 28억)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숙 관광진흥과장은 "특화된 해양콘텐츠 제공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해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산=김경침기자

전북중앙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010면 지역

전북 최초 등대 '말도' 서해안 대표 해양명소로 재탄생

해양문화공간 첫 공모 선정
군산, 40억투입 전망대설치
전시체험공간-모험길 조성
상징성 부각 보물섬 거듭나



116년의 역사를 가진 말도 등대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선정에 서해안 대표 해양 명소로 재탄생의 전망이다.

지난 1909년에 점등한 전북 최초의 등대 말도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말도 등대는 단순한 항로의 안내등에서 벗어나 해양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보물섬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얻었다.

해당 사업은 해수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공모사업으로, 전국의 경관 우수 지역에 위치한 등대를 문화공간으로 재정의해 관광 자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산시는 말도 등대의 역사적

상징성과 고군산군도의 천혜 해양경관, 그리고 K-관광섬 육성사업과의 연계성을 내세워 공모에 도전했다.

특히 강임준 시장이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 예산

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군산시는 지난 6월 공모를 신청했고, 7월 현장평가와 발표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시는 '모험과 이야기가 있는 보

물섬 말도'라는 주제로 △말도 등대를 조망하는 '보물섬 전망대' △등대 내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체험공간을 제안했다. 여기에다 △등대 주변의 야외 치유 공간 △선착장에서 등대로 이어지는 '등대모험길' 조성 등도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 CNN도 주목한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자연이 말도 등대와 어우러지며 독보적인 관광 자원을 만들어낸 것도 제안에 담았다.

또 말도-명도-방축도를 4개의 인도교로 연결하는 해상인도교 설치공사, 14km의 걷기길 고군산 섬잇길 조성과 연계해 말도를 서해안 대표 트레킹 명소로 상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여기에다 관련 부서 간 협업기구인 행정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

고, 섬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한 부분도 선정에 한몫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산시는 총사업비 40억(국비12억, 지방비 28억)을 확보,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임준 시장은 "말도 등대가 가진 역사성과 경관을 바탕으로 해양 전시·체험·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해양문화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앞으로 말도-명도-방축도를 연결하는 해상인도교 및 총 14km의 산책로를 '고군산 섬잇길'이라는 브랜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걷기 여행(트레킹) 관광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조성과 관광섬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보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

군산=김기현기자